

상생 꿈꾸는 마을기업...마을엔 웃음꽃, 미래엔 희망꽃

마을·주민·의미 살리는 광주·전남 마을기업들의 설 맞이

영광 차량 이동장터 '동락점빵' ...주1회 마을 찾아 안부 묻고
광주 서구 '한누리꽃담' ...이주여성 공동 육아·커뮤니티 형성
진도 농산물 영농조합...교육·환경 정화·수출 등 판로 확대도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마을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희망찬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일궈왔다. 적막했던 시골에서 웃음소리가 되살아나고, 이주민들이 당당한 이웃으로 자리 잡는 변화. 마을기업들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다.

◇미트 없는 농촌의 '오아시스'="어르신,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영광군 묘량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누비며 어르신들께 생필품을 전하는 차량형 이동장터 '동락점빵'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곤 한다.

동락점빵은 영광군 묘량면 주민 429명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1년 여민동락공동체 소속 세 가정 이 귀촌한 후 마을을 유일한 소매점이 사라지자 "직접 어르신들을 위한 집화점을 만들자"며 나선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전남도 1호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세우고 사업을 이어 왔다.

동락점빵은 이곳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세상과 만나는 창구이자 안부를 나누는 따뜻한 이웃이

자 손님이 됐다. 동락점빵의 이동장터 모델은 서울 희망제작소 사회가치 투자대회 1등, 2022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며 이미 전국적 모델 사례가 됐다. 동락점빵을 이끄는 사회복지사 김동광(37)씨는 "이동장터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는 복지 현장"이라며 "어르신들은 물건 구매보다 방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목표를 전했다.

김씨의 새해 목표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김씨는 "이동장터가 사회적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임을 입증하고 싶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에서도 지역 내 자립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올해 목표를 전했다.

◇이주여성들과 함께 꽃 피는 상생 일터=이주 여성들이 모여 화환을 만들어 판매하고, 지역에 다문화 음식도 전파하고, 서로의 아이도 함께 돌봐주고.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마을기업 '한누리꽃담'은 이주여성들의 자립과 공동 육아, 커뮤니티 형성까지 해결해 주는 특별한 공동체로 자리잡았다.

한누리꽃담은 이주여성들끼리 모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간 시간대에 함께 일하고, 사업장 내에 공동



영광군 묘량면의 마을기업 '동락점빵'을 책임지는 김동광 사회복지사(왼쪽)와 광주시 서구 마을기업 '한누리꽃담'을 운영하는 이주여성들. <마을기업 제공>

육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 키우면서 하기에 적합하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으며, 체험 활동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6년 중국 이주 여성 7명이 꾸린 것을 시작으로 10년간 한누리꽃담을 거쳐 간 이주 여성은 베트남 등 30여명에 이르며 교육을 거쳐 상당수가 취·창업에 성공했다. 모인 수익으로는 누적 2000여 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도 기여했다고 한다.

장춘화(여·50) 한누리꽃담 대표는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어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며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식당 일도 가기 쉽지 않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장 대표는 올해도 이주 여성들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 제공해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꿈이다. 장 대표는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가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주 여성들이 이 땅에서 같이 화합하며 봉사도 하는 같은 이웃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산물 살리고 '농가 소득' 올리고=진도군의 마을기업 '진도군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이하 법인)은 올해도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상생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올해로 15년째 활동 중인 이 법인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농촌의 수입 증대에 힘을 쏟고 있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력 품목을 건나물에서 재배하기 쉬운 유기농 잡곡으로 바꾸고, 농민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진도 지역 내 농산물 폐기 사례를 줄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덕분에 지난해만 해도 400여곳에 달하는 농가와 협력해 한 해 38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



돌아올 수 없는 가족...흔적이라도 찾길

제주항공 사고기 잔해물 재조사...유류품 잇따라 발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사고기의 꼬리 날개 등 잔해물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개시 직후 옷자락 등 유류품과 기체 주요 부품으로 추정되는 볼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유족들 사이에서 사고 초기 수습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무안국제공항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피해자지원단이 주관한 사고기 잔해물 재조사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재조사는 참사 이후 1년여 동안 공항 외부에 보관돼 있던 꼬리날개 등의 보관 상태가 미흡하다는 유족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보관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잔해물 보관시설 개선 작업과 재조사는 주 2회씩 수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조위는 잔해물을 컨테이너 4개 등에 나눠 보관하고 꼬리날개는 별도 가건물을 설치해 관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시편 등이 발견될 경우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서 희생자들의 기존 DNA 분석 정보와 대조해 신원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는 녹슨 기체 잔해 사이로 붙어타다 남은 옷자락 등 91점의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됐으며, '플랩 컨트롤(양력 조절 장치)'로 추정되는 부품도 발견됐다. 방수포 등지에서는 동물 배설물까지 확인돼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유족 김성철(54)씨는 "기체 중요 장치여 여기 방치돼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 예정인 신규 사조위가 참사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국제공항 시공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지난 1999년 무안국제공항이 착공할 당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도, 풍력발전기 전수 점검

3월 6일까지 육상·해상 22개소

전남도가 지역 풍력발전기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타워 꺾임 사고와 경남 양산시 풍력발전기 화재 등 안전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남도는 12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군과 합동으로 풍력발전 설비 안전성과 화재 예방 대응체계 등을 점검한다.

전남지역의 경우 육상풍력발전단지 20개소(455MW), 해상풍력발전단지 2개소(100MW) 등이 상입 운전중이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풍력발전기 타워와 지지구조물의 안전 책임은 발전사업자에게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사고를 계기로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부산서 철도관광 직접 홍보

목포·영암·해남·강진·장흥·보성 참여...여행 코스·특산물 알려

전남도가 부산을 찾아 남해안 철도관광 홍보에 나섰다.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외면(광주일보 1월 30일 7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남도가 직접 지역 여행 상품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챙기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2일 부산역과 부전역을 찾아 '목포-보성선 철도관광' 홍보전을 열고 남해안 철도관광 수요 선점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는 이날 부산·경남권 주민과 설 귀성객들에게 목포·보성선을 타고 둘러볼 수 있는 전남 여행지 홍보에 주력했다.

목포·보성선 경유지 6개 시·군(목포·영암·해남·강진·장흥·보성) 등이 참여했다.

앞서, 장흥은 코레일과 협약을 맺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내놓았지만 단 한 명도 이용하지 않아 연계 교통편 등에 대한 무관심과 홍보 부실에 대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남도는 부산역 이용객들을 상대로 부산·경남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철도노선과 연계한

관광 코스 소개와 주요 관광지·핫플레이스·여행지 할인 혜택 등을 담은 리플릿과 전남 관광지도, 전남산 특산물 등을 나눠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날 홍보 활동을 계기로 부산·경남권 단체관광객을 겨냥한 열차여행 특화상품을 확대하고 남도고택, 남도한상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 발굴에 나선다.

모집 여행사에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남해안 철도관광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여행객 대상 관광지·숙박·식사 할인혜택도 확대한다.

전남도 오미경 관광과장은 "지난해 23년 만에 개통된 목포·보성선을 중심으로 전남·경남·부산을 잇는 차별화된 철도여행 콘텐츠와 혜택 등을 담은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6-1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6. 1. 12.(월) ~ 2. 13.(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중앙도서관 1층 교학처), 이메일 신청(gsu23417@naver.com)

교육문의 062)605-1023, 1063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3월 초 개강

색채심리상담 전문가 양성과정 _ 화 9:00

아로마 테라피스트 과정 _ 월 10:30

파크골프 지도자 2급 과정 _ 금 9:00 / 토 9:00

흥미만점 영어회화 _ 금 14:0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kwangshin.ac.kr

3월 2일 개강, 현재 모집중

2026학년도 1학기

비전신학원 신입생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담임 교역자 추천을 받은 자
※단, 전문인 사역자 과정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문의 062)605-1023, 1063

- 2년 4학기 [주 2일 야간 (월·대면/화·비대면)]
- 여전도사 과정
- 중직자 과정
- 평신도 사역자 과정